

경남일보

HOME > 사회 > 사회종합

이경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, 챌린지 동참

윤 박수상 | 2022.04.19 15:15

이경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이 19일 일상생활에서 상품의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'과대포장 안 받고 안 사기 실천 운동 챌린지'에 동참했다.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'과대포장 NO! 일회용품 NO! 친환경 포장 YES'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했다.

박수상기자

